하수찌꺼기 감량화 '1석3조' 효과

익산시, 지난해 12월 공사 마무리… 6개월간 종합시운전·8월부터 본격 운영

익산시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한 하수찌꺼기 감량화 설비가 예산 절감은 물론 악취 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부터 운영이 본격화되면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위한 설비 공사가 마무리됐다. 현재 각각의 설비들이 설계 시 성능대로 정상 가동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6개월간 종합시운전 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다.

시는 이번 종합시운전을 통해 수질, 악취 분석과 바이오가스 발생량, 슬러지 감량화율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적의 운영조건을 검증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원(국비 188억원, 도·시비 각각 4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4년여간의 기간을 거쳐 공사가 마무리됐다.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설 운영이 본격화되면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1일 71톤에서 57톤으로 14톤이 감소돼 연간 6억원 정도의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량화 과정에서 1일 9천910N㎥의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연간 7억원의 부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매년 13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밖에도 노후시설 개선과 대용량 탈취기(500㎥/min, 1기) 등 부족한 시설 증설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해 인근 지역 민원 해소와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물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익산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12억원 투입 상수도 시설물 정비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해 물 복지 실현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유수율 제고'와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물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화한다.

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증진을 위해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함열읍(동지상 마을), 여산면(동헌, 영전 마을), 금마면(용순 마을), 왕궁면(궁평 마을) 일원노후관 L=3.0㎞를 교체하고 제수변과 소화전 등 밸브류 시설에 대한 정비를 시행한다.

또한 상수도 누수에 대한 긴급 복구로 누수량을 저감하는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압 저하 등 급수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물 낭비를 최소화한다.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관망정비와 블록구축 등을 병행해 시설물 유지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소규모 급수시설(지하수)을 생활용수로 해결하고 있는 일부 농촌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10억원을 투입해 가압장, 배수관로 등 지역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춘포와 여산, 낭산면, 금강동 일부 급수 취약지에 배수관 부설공사(3.97㎞ 부설)를 실시해 수돗물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압 저하 고질 민원 지역인 석암동, 모현동, 웅포면, 원팔봉에는 가압장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상수도관 공사로 노면 침하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를 연중 추진한다.

지난해 각 읍면을 통해 실시한 상수도 부설도로 침하 발생지역 전수조사를 토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포장 공사는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노후관 교체사업과 블록 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로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상수도 시설 운영으로 시민 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김미정 부시장, 기재부 방문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 실시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이 28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활동을 실시했다.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이 28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활동을 실시하였다.

김 부시장은 먼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북 향우 인사를 만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리츠프라자호텔~지곡교회 도로개설, 군산항 항로 유지준설, 문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을 만나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편성된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하였다. 또한 준설 부족으로 인한 토사 퇴적으로 항만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군산항의 준설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4년도 부처 예산편성 시 20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김 부시장은 "부처 예산안 편성은 국비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현안 사업 중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들의 논리 개발과 대응방안을 찾아 부처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주요 조례 13건 가결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등 13건의 조례 및 동의안을 가결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익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상해 및 의료비 보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는 익산시가 해마다 100여 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협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협약체결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는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와 같은 중요한 행정행위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건 모두 이종현 의원이 발의했다.

장경호 의원은 다가오는 8월 1일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고, 공단이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강경숙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으며, 정영미 의원은 2023년 2월 기준, 전국 3만5,020개의 벤처기업 중 0.3%에 불과한 124개의 벤처기업이 있는 익산시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13건의 조례와 동의안은 29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중국 진강시 방문단, 국제교류 위해 익산 방문

익산시가 중국 진강시와 본격적인 국제교류를 재개한다.

이를 기점으로 시는 문화와 경제, 인적자원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해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 방문단 6명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익산을 방문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올해 11월 개최될 자매도시 교류 25주년 기념행사 사전준비사항과 함께 문화·체육,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양 시는 잠시 중단되었던 축구 친선경기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차후 진강시 개발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간 교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시는 진강시에 익산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교류 25주년을 맞이한 두 도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교류 활동에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은 "3년여만에 다시 익산시를 내방한 진강시 방문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청렴문화 확산 시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군산시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28일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감사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공유 및 제언과 2023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올해 주요 활동 계획에 따른 활동 방향과 역할에 관해 토론하고 청렴 의식을 전파하는 선도자로서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 한해 시민감사관 중점 사업으로 △각종 제보·건의 활성화를 통한 제도개선 △공사 관리·감독 분야 21개소 및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자체 종합감사 일정공개를 통한 모니터링 △특정 전문분야 참고 자문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유관기관 합동 수송초교 교통안전 캠페인

군산시가 교통안전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며 어린이들의 안전 지키기에 힘쓰고 있다.

시는 28일 수송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 강화 캠페인은 새학기 시작 이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운전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교통문화·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을 비롯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 기관·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및 신호 준수 등을 집중 홍보하며 안전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군산=이재춘기자